

정보화 확산이 금융 산업 발전에 미친 영향 분석

-노영진 연구위원(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 외

1. 출장 개요

- (1) 출장자 : 노영진, 김진웅 연구위원(산업경제연구센터)
- (2) 출장기간 : 2011년 12월 5일(월) ~ 12월 10일(토) (5박 6일)
- (3) 출장지역 : 프랑크푸르트(독일)
- (4) 출장과제: 정보화확산이 금융산업 발전에 미친 영향 분석
- (5) 출장목적
 - 본 해외출장은 독일의 관련 기관을 탐방하여 독일 금융산업과 정보화확산에 관한 현황 및 자문을 구하는 것에 초점
 - 독일의 경우 정보화확산이 금융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수탁과제 연구범위 중 하나
 - 이를 위해 현지를 방문하여 관련 기관의 담당자들과 함께 독일의

금융산업의 현황과 경쟁력, 그리고 정보화 확산이 금융산업 발전에 미친 영향을 논의하는 것이 본 해외출장의 주요 목적

2. 회의개요

	12월 6일	12월 7일	12월 8일
방문기관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트 사무소	도이치뱅크	KfW
면담자	김영찬 소장 김인구 차장	Dr. Bernhard Speyer, (Head of Banking, Financial Markets, Regulations DB Research) Jan Schildback, (Senior Economist, Banking, Financial Markets, Regulations DB Research)	Dr. Harald Lob, Vorstandsstabl

3. 회의 주요 내용

(1) 12월 6일 회의

- 장소: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
- 면담자: 김영찬 소장
 김인구 차장
- 논의 주제: 독일 금융 현황과 정보화 확산이 독일금융에 미친 영향
- 독일 최근 재정위기관련 현황 논의
 - 아직 잠재적 위험요인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시장 및 경제 전반에 동요는 크지 않음.
- EU재정위기와 관련하여 주변국과의 이견
 - EU주변국 주장: EU통합당시 독일 마르크화는 저평가된 교환비율

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EU내 무역에서 흑자를 얻어왔으므로 보다 EU 위기에 독일이 부담할 필요가 있음.

- 독일 측 주장: 독일은 그동안 임금상승률이 EU중 최저로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자구노력을 강구했으므로 그동안 역내무역 흑자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

○ 독일 은행 체계에 대한 논의

- 독일 은행업계는 한마디로 급격한 성장은 없지만 무엇보다 안정적임.
- 특히 상업은행 중 일부가 고수익을 쫓아 해외 모기지 시장에 진출하였다가 큰 손해를 보았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바 있음.
- 그러나 기본적으로 독일 은행들이 그동안 세계시장 진출보다는 독일 국내 기업대출 중심의 전통적인 영업패턴에 따르므로 안정적인 형태임.

○ 독일 은행체계는 “관계”중심.

- “부인과는 이혼할 수도 있지만, 은행을 바꾸는 일은 흔치않다.“ 라는 말을 하면서 관계를 중시.
- 이는 소매금융 뿐 아니라 도매금융에서도 마찬가지로의 양상을 보임.
- 즉 전통적인 은행영업이 고객과의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나타냄.
- 단, 은행은 고객과 처음 거래를 시작할 당시 고객에 대한 꼼꼼한

조사를 함.

○ 독일 금융계에서의 정보통신의 이용은 제한적임.

- 일반적인 분위기상 소매금융에 있어서 은행거래에 정보통신망이 사용되는 것은 한국에 비해 비교적 덜 보편적임.
- 높은 연령층에서는 e-commerce와 같은 온라인 거래보다는 직접 거래하는 것을 선호
- 그러나 주식거래체계에서는 정보화가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주식시장의 전산화를 유럽 내에서 가장 초기에 구축할 정도로 인프라를 보유
- 특히 유니버설 banking시스템을 가지는 은행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전통적인 계좌거래, 주식, 보험업무 등을 모두 일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

(2) 12월 7일

■ 장소: 도이치뱅크 헤드쿼터

■ 면담자: Dr. Bernhard Speyer, Head of Banking, Financial Markets, Regulations DB Research
Jan Schildback, Senior Economist, Banking, Financial Markets, Regulations DB Research

■ 논의 주제: 1) 독일의 금융시스템 현황에 대한 논의
2) IT 산업의 발전이 금융산업 발전에 미친 영향

(1) 독일 금융의 현황

□ 독일 금융의 비효율성과 안정성

○ 독일 금융시스템은 은행중심적인 시스템이나, 2000년 이후 은행의 총자산 규모 측면에서 매우 느리게 성장해옴.

- 지방은행과 저축은행 등 많은 공공적 성격을 지닌 은행들은 이익 극대화 행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 취약한 면을 보임.

- 이러한 공공적 성격을 지닌 은행들이 독일 금융시스템에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효율성 측면에서는 낮게 평가

○ 독일 금융의 장점으로서는 금융위기 과정에서 보인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들 수 있음.

-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타 국가에서 관찰된 급격한 은행대출의 감소와 이로 인한 실물경제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미미하였음.

- 이는 독일 은행부문에서 예금자의 입금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에 기인

- 또한 대출 추이가 급격하게 상승한 시기도 없었기 때문에, Boom과 down이 없는 안정적인 추세에도 기인

□ 공공적 성격을 지닌 은행

○ 지방은행과 저축은행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은행들의 수익성이 취약할 경우 어떻게 유지되는지에 대해 질문

- 공공적 성격을 지닌 은행의 경우 주정부 등이 주로 주주로 참여하

고 있으며, 세금을 통한 주 재정이 일부 투입

- 그러나 해당 은행들의 경우 배당을 지불해야 하는 일반 상업은행들과 달리 발행된 이윤을 모두 자기자본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쉽게 자본을 확충할 수 있음,

□ 은행의 장기적 관계(relationship)

○ 독일 은행의 장점으로 여겨지는 은행과 소비자, 또는 은행과 기업과의 장기적 관계에 대하여 질문

- 소비자의 경우 “배우자와 이혼은 하더라도 은행과의 관계는 유지하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장기적인 관계를 중시하였으나, 최근 들어 인터넷뱅킹 등 다양한 저축수단이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장기적 관계가 많이 희석됨.

- 기업 측면에서 독일 은행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1990년대 이전까지 기업들의 지배구조에서 주주로서 참여하였으며, 이러한 지배구조 참여는 은행과 기업이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일조

- 그러나 은행의 기업지배구조 참여가 법적으로 금지된 이후, 이러한 장기적 관계는 다소 변화하였으며, 최근에는 많이 완화되었다고 설명

- 은행의 장기적 관계가 과거에 비하여 많이 희석된 것은 사실이나, 타 국가와 비교 시,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됨.

□ 벤처캐피탈의 존재

○ 독일의 경우 벤처캐피탈이 있는지, 그 역할을 하는지를 질문

- 독일의 경우 은행들이 일부 펀드를 조성하여 벤처캐피탈을 조성한다고 하는 사례가 있으나 대부분 형식적인 성향을 보이며, 실질적인 벤처캐피탈은 거의 전무
- 독일의 산업구조가 전통적인 제조업과 이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창출에 주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혁신적 기업의 나오기는 매우 어려운 환경
- 또한 자본과 기술에 대한 지식, 그리고 경영 지식 등을 함께 보유한 벤처 캐피탈리스트의 부재도 이에 일조
- 과거 ICT 발전으로 인한 주식시장 버블현상을 경험하였으나, 그때는 대부분 기업들이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

□ 독일 금융시스템의 변화

- 2-3개의 민간 상업은행과 지방은행으로 이루어진 상업은행,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3개의 축으로 이루어진 독일 금융시스템이 변화하려는 추세가 있는지를 질문
 - 3개의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반적인 시스템은 현재도 계속 유지되고 있으나.
 - 민간상업은행 간 합병과 EU 체제로 인한 지방은행의 활동 축소 등 다양한 면에서 변화가 진행중

□ ICT 기술과 금융산업

- 금융정보화 확산은 은행업무의 발전을 초래
 - 예금 측면에서 인터넷뱅킹이 크게 확산

- 지급결제 측면에서 많은 효율성을 제고
- 그러나 기업금융과 부동산 측면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지급결제 방식이 주를 이룸.

□ 결론

- 도이치 뱅크는 독일의 민간상업은행 중 1위의 은행으로서, 현재 독일의 금융시스템을 매우 비효율적으로 판단
 - 이는 은행의 총자산이 거의 변화하지 않았으며, 독일 은행들의 수익성이 서구 은행들에 비해 낮다는 사실에 기초
 - 독일의 최대 민간은행으로서 보다 효율적이지 못한 독일 금융시스템을 취약하게 보는 시각을 발견
- 이러한 사실은 독일 내부에서도 독일 금융시스템에 대한 찬반이 있으며, 효율성과 안정성을 모두 추구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적 상황을 재발견할 수 있었음.
 - 독일 금융의 장기적 관계에 의존한 자금중개기능은 실물경제를 효율적으로 견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공공적 성격의 확대는 은행부문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 이러한 사실은 독일의 효율적 자금중개기능은 우선적으로 공공적 성격을 지닌 지방은행과 저축은행, 그리고 신협협동조합에서 우선적으로 발견되며, 도이치뱅크와 코멘츠뱅크 등 민간은행은 상당부분 영미식 모델을 따르고 있다는 점을 시사

(3) 12월 8일 회의

- 장소: KfW Bankensgrupe 프랑크푸르트 본점
- 면담자: Dr. Harald Lob, Vorstandsstabl
- 논의 주제: 1) 독일의 금융시스템 현황에 대한 논의
2) 독일 온렌딩 방식 구조 및 특징 논의

□ 독일 금융의 특징

- Dr. Harald는 독일 금융을 은행중심적인 구조이나 은행들의 수익성이 영미권 은행들에 비하여 낮으나 실물경제 지원 기능이 보다 안정적임을 지적
 - 그러한 측면에서 은행의 효율성이 낮다고 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관계금융으로 인하여 실물경제, 특히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능이 타 국가에 비하여 뛰어난을 설명
 - 독일 은행은 3 Pillars 즉 상업은행, 저축은행, 협동조합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업은행은 민간상업은행과 지역은행으로 구분
- 각 은행들은 지역적으로 분포되어 특정기업 및 소비자들의 현황 및 실적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래은행(Hausbank)의 관계를 구축
 - 긴밀한 은행과 실물부문 간 관계는, 전후 은행(도이치뱅크)이 기업들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기업 지배구조에 참여하며 기업운영에 참여했던 역사적 전통에서 비롯
 - 그러나 1990년대 말 법으로 은행의 기업지배구조 참여가 제약된

이후, 이러한 은산 간 관계는 이전에 비해 약해졌으나, 아직까지 여전히 타 국가에 비해서는 강한 상호간 관계를 이룸.

- 하우스뱅크(주거래은행)는 독일 은행이 거래기업 또는 소비자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온렌딩방식의 정책금융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특징
- 그러나 기업 또는 소비자가 하나의 하우스뱅크만 가지는 것은 아니며, 복수의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거래 가능

□ KfW의 역할

- KfW는 정부의 출자를 통해 이루어진 기관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비롯한 정책금융의 집행을 담당
 - 기업이 하우스뱅크에 돈을 신청할 때 일부를 KfW 온렌딩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우스뱅크에 심의를 요청하고, 하우스뱅크는 이를 심사한 후 KfW에 자금을 요청하는 온렌딩 시스템은, 독일의 대표적인 정책금융 지원 체계
 - 신용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 하우스뱅크는 담보를 요청
 - 그러나 KfW 론의 경우 Start-up을 위한 특별한 성격의 론을 제공
- 하우스뱅크 역할은 민간상업은행, 지역은행, 저축은행, 신용조합 등 모든 종류의 은행이 가능하며, KfW는 모든 은행들에 대해 평등한 입장을 견지
 - 하우스뱅크는 주거래은행으로 론을 심사하기 위한 기업의 역사와 현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심사가 가능

○ 독일 내 은행들 간의 경쟁의 심화는 각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온렌딩방식에 참여하는 인텐티브를 부여

- 온렌딩 지원을 중개함으로써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이자율을 책정하고, 이를 통해 향후 이자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들 간의 경쟁 심화는 각 은행들이 온렌딩방식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인텐티브를 부여

- 리스크가 높은 기업의 경우, KfW가 보다 높은 수준의 위험도를 떠맡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운영

- 만일 부당한 이유로 은행이 기업의 온렌딩 지원을 거절할 경우, KfW가 직접 기업에게 지원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음.

○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KfW는 민간부문의 자금위축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

- 긴급 비상자금을 조성하여 하우스뱅크 및 기업들에게 온렌딩방식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자금위축을 방지

- 그러나 과연 적절한 타이밍이었는냐에 대해서는 내부적 논란이 존재

□ ITC 또는 금융정보화의 확산의 영향

○ 소매금융: 주거대출행제도의 약화

- 인터넷을 통해 은행 간 이자비교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과거 직접 지점을 방문하여 예금을 예치하는 방식 대신 온라인으로 이를 처리하는 Direct Banking System이 대두

- Direct Banking System은 외국계 은행들이 최초로 독일에 도입하였으나, 이제는 모든 독일 내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참여
-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은 독일 은행의 특징 중 하나인 주거래은행 제도를 소매금융 측면에서 약화시킴.
- 금융인프라 확충은 이같이 독일의 오랜 특징 중 하나인 주거래은행 제도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

○ 정책금융: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를 통한 정책금융 기능 강화

- 과거 은행들이 독점하였던 KfW 론의 종류와 성격, 그리고 세부 정보들을 이제는 기업들이 직접 KfW 홈페이지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음.
- 은행들이 소개해주는 론을 수동적으로 채택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기업들이 본인들에게 적합한 론을 직접 선택하여 주거래은행들에게 요청할 수 있음.
- 이러한 정보화 확산은 정책금융 측면에서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시키는데 기여